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서혜은*

<차 례>

1. 서론
2.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배경
3.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
4.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경상도 안동을 배경으로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향유된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남 지역 몰락 양반들의 가문 의식과 조선 후기 정절 이데올로기로 인한 영남 지역 여성들의 수난으로 인해 영남의 서사로 전개되는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인 백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완화되고 숙영과 임소저의 열행과 절행은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는 조선 후기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孝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되고 양반 사대부적 취향의 여성관과 혼인관이 부각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양반 문화로 대변되는 영남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의식은 〈숙영낭자전〉이 영남의 서사로 형성되고 향유되는 과정을 거쳐 대중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동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주제어: 〈숙영낭자전〉, 영남, 지역성, 대중성, 양반 문화

1. 서론

고전소설의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숙영낭자전〉의 작자는 안동 사람 또는 안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것으로 논의된 이래 지금까지 〈숙영낭자전〉은 안동을 배경으로 안동 지역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1] 현전하는 〈숙영낭자전〉 이본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와 조선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지만 지역적 배경은 대부분이 경상도 안동인데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본과 활자본에서도 작품의 배경은 변함없이 안동으로 되어 있다.[2]

---

1) 〈숙영낭자전〉의 작중 배경이 안동이며 작품에 나오는 용궁이라는 지명과 작품에서 확인되는 경북 방언을 근거로 안동을 창작지로 추정했다(김태준, 『조선소설사』, 예문, 1989, pp. 171-172; 김일렬, 「작품의 역사적 성격」,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p. 155).

2) ㉠ 화셜 세종조ᄯᅴ의 경상도 안동ᄯᅡ히 한 션비 잇스되 셩은 빅이요 명은 상곤이라(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4, 연세대학교, 1975, p. 445).
㉡ 화셜 세종조ᄯᅴ에 경상도 안동ᄯᅡ히 ᄒᆞᆫ 션비 잇스되 셩은 빅이요 명은 상군이라(〈特別 淑英娘子傳〉,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5, 은하출판사, 1983, p. 247).

심지어 1961년 안동민에 의해 개작된 〈숙영낭자전〉과 박록주·박송희·박동진에 의해 불리어진 판소리 〈숙영낭자가〉 및 〈숙영낭자전〉의 작중 배경 또한 안동으로 확인된다.[3] 이처럼 현전하는 〈숙영낭자전〉 이본의 작품 속 배경은 대부분 안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작품 속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사된 지역 또한 상주·영양·청송·영천·부산·함안 등 영남 지역으로 밝혀진 〈숙영낭자전〉의 이본이 현전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현전하는 〈숙영낭자전〉의 이본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 필사된 것으로 밝혀진 이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

【표 1】 영남 지역에서 필사된 〈숙영낭자전〉의 이본 목록

연번	원제	장수	소장자 및 소장처	영남 지역과 관련 필사 기록
①	〈슈경낭ᄌᆞ젼〉	27	사재동 소장본 『숙영낭자전』1	**釜山府 草梁洞**
②	〈슈경낭ᄌᆞ젼〉	46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 전집』48	**경상도 안동 임혈뉘**면쳔 젼거 권ᄉᆞ집이 가보라

3) ① 경상도 안동 땅에서 하늘이 아는 부자, 백상군의 부인 정씨는 벌써 한식경 전부터 잠이 오지 않는대로 자리에 누운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산란하였다(안동민, 〈淑英娘子傳〉, 『한국문학대전』 12, 예서각, 1977, p. 10).
② 조선 세종 연간에 경상도 안동 땅에 백상군이란 선비가 있어 아들 하나를 두었으되 이름이 선군이라 하였구나(〈숙영낭자전〉, 『박녹주 창본』, 집문당, 1988, p. 140).
③ 이조 세종 연간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디 성은 백이요, 이름은 상군이었다(박송희 창본 〈숙영낭자가〉, 『〈숙영낭자전〉의 작품 세계』 3, 보고사, 2014, p. 240).
④ 이조 세종대왕 때에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살았으니 성은 수원 백씨요, 이름은 상공이라(박동진 창본 〈숙영낭자전〉, 앞의 책, p. 256).

4)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24, 2007, p. 224; 서혜은, 「경판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 89; 김선현,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공간 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4, pp. 37-41.

③	〈옥낭ᄌᆞ전이라〉	31	원광대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 자료총서』76	**釜山港內**
④	〈낭자전이라〉	35	〃	**경상북도 남경군 사양면** 신절이 고소지라
⑤	〈슈경낭자젼〉	28	영남대 소장	**영쳔군 화북면 션쳔도**
⑥	〈수경낭자 수경낭자전〉	34	경북대 소장	**경북 영양군 청기동 저동** 238
⑦	〈수겡옥낭좌전 권지단이라〉	48	경남대 소장	**咸安郡 漆西面 二龍里**[5]
⑧	〈수경낭자전〉	33	박순호 소장 (실물 미확인)	**안동땅 병조판록 경진연정월십일 慶尙北道 靑松郡 眞寶面 新村洞**[6]
⑨	〈숙영낭자전〉		사재동 소장 (실물 미확인)	**상주군 화동면 영지리**[7]

특히 위 【표 1】의 ⑦에 제시된 경남대 소장 48장본 〈수겡옥낭좌전 권지단이라〉의 경우에는 작품 속에서 사용된 경남 방언이 확인되어 영남 지역에서 필사된 이본임이 밝혀졌다.[8]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은 소설 속 배경과 필사본으로 향유된 곳 모두 영남 지역으로 일치하는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숙영낭자전〉과 유사한 서사로 전개되는 『태평한화골계전』에 수록된

5) 김영태, 「〈수겡옥낭좌전〉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 9, 1992, p. 6.

6)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上), 박이정, 2006, p. 511.

7) 김재웅, 앞의 논문, p. 224.

8) 김영태, 앞의 논문, pp. 5-14; 김형철, 「〈수겡옥낭좌전〉의 어휘 연구」, 박창원, 「경남 방언의 모음변화와 상대적 연대순 - 필사본 〈수겡옥낭좌전〉을 중심으로」, 김정대, 「〈수겡옥낭좌전〉에 반영된 경상도 방언 문법적 요소에 대하여」, 『가라문화』 9, pp. 15-111.

〈科擧者潛踪其妻〉의 작중 배경은 성주로 되어 있으며 〈숙영낭자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서사 민요 〈옥단춘요〉의 채록 지역은 영양과 청송으로 밝혀졌다.[9] 따라서 〈숙영낭자전〉은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 서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과 연관 지어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영남 지역에서 필사본으로 형성되고 향유된 〈숙영낭자전〉이 경판본과 활자본으로도 여러 차례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숙영낭자전〉의 경판본은 28·20·16장본으로 간행되었으며 활자본은 1915년 신구서림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여 1961년까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10] 특히 활자본 가운데 대동서원·광동서국에서 간행된 작품의 경우 1915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1918년에는 6판이, 경성서적업조합·조선도서주식회사 간행본은 1921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1923년에는 4판이, 조선도서주식회사·박문서관·광동서국 간행본은 1921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1924년에 4판이 출간되었다.[11] 경판본과 활자본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출판물이며 지속적으로 간행된 측면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자층의 호응을 받은 작품임이 확인된다. 판소리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 역시 경판본을 저본으로 형성되었거나 경판본 계열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논의되었다.[12] 또한 1935년을 전후 LP음반으로 제작된 무성영

9) 星州有士族者 新婚甚昵廢學(서거정 지음·박경신 역주, 『태평한화골계전』 1, 국학자료원, 1998, p. 180; 손경희, 「〈숙영낭자전〉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논문, 1986, p. 27;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pp. 360-365.

1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pp. 217-218;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pp. 313-323; 조희웅, 앞의 책(2006), pp. 512-513.

11) 조희웅, 앞의 책(1999), p. 323; 조희웅, 앞의 책(2006), pp. 512-513.

12) 성현경,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의 비교-소설의 판소리화 과정 연구-」, 판소리학회, 『판소리연구』 6, 1995, pp. 32-53; 김일렬, 앞의

화 대본 〈숙영낭자전〉마저 소설을 저본으로 축약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리고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1961년 안동민에 의해 현대 소설로 개작된 〈숙영낭자전〉은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했을 때 안동을 배경으로 하여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작품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활을 건 숙영과 선군의 낭만적인 애정 서사에 대한 독자층의 호응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본다. 숙영과 선군의 애정 서사는 선군의 부모와 시비 매월로 인한 숙영과 선군이 애정 갈등과 숙영의 자결이라는 공통된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은 다양한 형태와 많은 수의 이본으로 현전하는 작품이며 숙영의 죽음 이후 전개되는 서사는 이본에 따라 상이하다.[14] 하지만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이본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확인되는 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숙영낭자전〉의 공통 서사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채록된 〈옥단춘요〉와 〈숙영낭자전〉의 판소리 사설과 무성 영화의 대본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15] 더구나 〈봉산탈춤〉 속 미얄의 대사에

책, p. 207; 김종철,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난대 이응백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한샘출판사, 1992, pp. 833-837; 윤분희, 「박록주 창본 〈숙영낭자전〉 연구」,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어문론집』 6, 1996, p. 90.

13) 김만수,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에 대하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6, 1996, p. 307.
또한 〈숙영낭자전〉은 1937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의 주최로, 1942년에는 조선음악단과 조선가무단의 주최로 공연되었고 1956년에는 드라마로 방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령, 「〈숙영낭자전〉 서사에 나타나는 대중성」,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25, 2013, p. 196).

14) 〈숙영낭자전〉의 이본 계열은 숙영의 죽음 이후 전개되는 서사의 양상에 따라 크게 네 계열로 논의된 바 있다(김일렬, 앞의 책, pp. 5-48).

15) 조동일, 앞의 책, pp. 360-365; 〈숙영낭자전〉, 『박녹주 창본』, pp. 140-162; 박송희 창본 〈숙영낭자가〉, 박동진 창본 〈숙영낭자전〉, 앞의 책,

서도 숙영의 억울한 죽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16]

〈숙영낭자전〉에서 부친의 강요로 선군이 과거를 보러 간 사이 시비 매월의 모해로 훼절의 의심을 받은 숙영이 자결하는 사건은 조선 후기 보수적인 영남 지역의 양반 문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지적된 바 있다.[17] 그렇다면 〈숙영낭자전〉이 획득한 대중성은 영남 지역의 문화 및 지역민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에 대한 연구는 환생담·금기·음모·예시몽과 같은 작품 내적 서사에 착안하여 논의되었으며 〈숙영낭자전〉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면모가 부각된다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역성과의 연관성은 배제되었다.[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문화 및 지역민의 의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다양한 형태로 현전하고 있지만 대중성을 논의하기에는 필사본보다는 상업성이 두드러지는 경판본이나 활자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경판본과 활자본의 경우 소설 속 배경은 안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출간된 지역은 서울이다. 경판본과 활자본의 존재는 영남의 서사로 향유되던 〈숙영낭자전〉이 서울에서까지 출간된 현상을 제시하기에 대중성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이본이라 생각된다. 〈숙영낭자전〉의 경

---

pp. 238-292; 김만수, 앞의 논문, pp. 333-335.

16) 절절 절시고 지화자 절시고. 거 누구나 날 찾나. 거 누구가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거 누구라 날 찾나. 인당수 풍랑 중에 심낭자가 날 찾나. 소상반죽 물들이던 아황·여영이 날 찾나. 반도회 요지연에 서왕모가 날 찾나. 섬둘 위에 옥비녀가 꽂히였든 숙영낭자가 날 찾나. 이도령 일거후에 수절하든 춘향이가 날 찾나. 거 누구라 날 찾나(임석재 채록, 〈봉산탈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전문학전집』 8, 1993, p. 170)

17) 김일렬, 앞의 책, pp. 139-160.

18) 김미령, 앞의 논문, pp. 195-220; 서혜은, 앞의 논문, pp. 92-93, p. 141.

판본과 활자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경판본이 활자본보다 선행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숙영낭자전〉이 영남의 서사라는 것은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필사본 이본을 통해 입증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필사본과 경판본과의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영남의 서사로 간주할 수 있는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배경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은 숙영과 선군의 애정 갈등과 그로 인한 숙영의 자결로 전개되는 〈숙영낭자전〉의 이본에서 확인되는 공통 서사로 인해 가능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숙영낭자전〉의 공통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의 배경은 안동이다. 소설 속에서 안동은 선군과 숙영의 만남과 이들의 애정이 성취되는 옥련동과는 대조적인 공간으로, 선군과 숙영의 애정이 파국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19] 〈숙영낭자전〉이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의 공통 서사인 숙영과 선군의 애정 갈등과 그로 인한 숙영의 죽음에는 영남 지역의 문화 및 지역민의 의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숙영낭자전〉의 공통 서사를

19) 〈숙영낭자전〉의 공간적 배경인 안동과 안동에서 숙영낭자가 머무르는 동별당은 여성이 억압되는 남성적 공간 또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이자 남성 주체적 공간으로, 옥련동은 여성이 해방되는 공간과 여성 주체적 장소로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공간으로 논의된 바 있다(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련동」,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pp. 218-308;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58, 2014, pp. 177-198).

중심으로 영남 지역의 문화 및 영남 지역민의 의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 배경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영남 지역 몰락 양반의 가문의식

〈숙영낭자전〉에서 선군의 부친인 백공은 선군과 숙영이 애정 갈등을 겪고 숙영이 죽음에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물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몰락 양반의 전형으로 등장한다.[20] 더구나 소설의 배경이 경상도 안동으로 설정되어 있고 영남 지역에서 향유된 필사본이 여러 종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군의 부친 백공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문 의식에 사로잡힌 영남 지역 몰락 양반의 전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백공의 보수적인 가문 의식은 궁극적으로 선군과 숙영이 애정 갈등을 겪고 숙영이 자결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소설 속에서 백공은 자식의 애정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더욱 중시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공은 선군이 옥연동에서 데려 온 숙영이 마음에 들었지만 숙영의 신분과 가문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육례를 갖춘 정식 혼례를 올려 주지 않는다.[21]

> 낭ᄌᆞᄒᆞ난 마리 안무리 육여을 갓초지 못ᄒᆞ온들 이 갓든 음힝으로 구종ᄒᆞ옵고 이더지 모함하신이 볼명 무지요나 세〃이 통촉ᄒᆞ옵소서 ᄂᆡ몸미 비록 세상의 처ᄒᆞ엿스나 빙천옥결 갓튼 정절과 일월가튼 마음을 가지옵고 ᄯᅩ 소〃ᄒᆞ신 명천이 초임하옵거날 엇지 외인을 통가ᄒᆞ오릿가[22]

20) 김일렬, 앞의 책, p. 143.

21) 이러한 백공의 모습은 숙영의 자결 이후 임진사의 딸인 임소저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 납채를 갖추어 구혼하고 선군과 육례를 올리는 모습과 대조된다.

22) 46장본 〈슈경낭ᄌᆞ전〉, 『김광순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8, 박이정,

그리고 백공은 전혀 과거에 뜻이 없는 선군을 설득하여 과거를 보라고 하여 숙영과 헤어지게 한다. 그러나 숙영을 잊지 못하는 선군은 밤마다 돌아와서 숙영을 만나다가 매월의 모해로 훼절의 누명을 쓴 숙영은 자결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자식의 애정보다 가문의 명예를 더 중시하는 백공으로 인해 선군과 숙영의 애정은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 하지만 백공은 숙영이 죽은 뒤에도 숙영보다도 오히려 아들 선군을 걱정하면서 임소저와의 혼인을 서두른다. 이와 같은 백공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모두 영남 지역 몰락 양반의 전형으로 설정된 백공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들은 경상도 안동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는 백공의 모습에는 영남 지역 몰락 양반들의 보수적인 가문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은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으로 혼인할 때는 상대의 가문뿐만 아니라 학맥과 당파까지 고려하여 학맥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의식이 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렇다면 몰락 양반들의 경우 이러한 의식은 더욱 강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숙영낭자전〉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 지역 몰락 양반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백공으로 인해 숙영이 자결한 사건은 가문의 명예에 집착한 몰락 양반의 극단적인 가문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되던 조선 후기에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는 양반들의 태도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숙영낭자전〉에서 백공으로 인해 선군과 숙영이 애정 갈등을 겪고 숙영이 자결하는 서사는 충분히 대중

1998, p. 204.

23) 임재해 외, 『안동양반의 생활문화』, 영남사, 2000, pp. 196-197, p. 433;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2006, pp. 188-190.

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숙영낭자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숙영낭자전〉에서 제시된 갈등의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는 〈숙향전〉 〈백학선전〉 〈권익중전〉 〈석화룡전〉 〈김진옥전〉과 같은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대거 출현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24] 따라서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는 영남 지역 몰락 양반들의 보수적인 가문 의식은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자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절 이데올로기화와 영남 지역 여성들의 수난

시비 매월의 모해와 백공의 오해로 인한 숙영의 자결은 〈숙영낭자전〉의 주요 사건이자 충격적인 사건으로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비 매월의 모해와 백공의 오해로 인해 숙영이 자결하는 사건은 현전하는 〈숙영낭자전〉 이본의 공통 서사이기도 하거니와 19세기 말과 20세기 후반까지 정정렬과 박록주에 의해 전승된 판소리 〈숙영낭자전〉에서는 숙영의 자결과 관련된 장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리고 1961년 안동민에 의해 개작된 〈숙영낭자전〉에서도 시비 매월로 인한 선군과 숙영의 애정 갈등은 상당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25]

〈숙영낭자전〉에서 전개되는 주된 갈등과 숙영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수절을 지나치게 맹종하는 시비 매월, 백공, 숙영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설 속에서 매월은 숙영을 모해하기 위해 숙영

24) 김일렬, 앞의 책, pp. 76-95.

25) 민혜성, 「정정렬과 박록주 〈숙영낭자전〉의 비교 분석 연구」, 판소리학회, 『판소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4, pp. 87-171; 안동민, 〈淑英娘子傳〉, 앞의 책, pp. 106-201.

이 훼절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선군의 부친인 백공은 숙영의 훼절을 사실로 받아들여 숙영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 상공이 ᄃᆡ로왈 일국 ᄃᆡ신 가의 외인이 규즁의 츄립한이 죄사무석이요 ᄒᆞ물며 ᄂᆡ 목전의 본 거슬 저디지 긔정한이 벼면이 다스리지 못할지라 하고 창두로 호령하여 각별 엄치ᄒᆞ야 동실즉공ᄒᆞ라 ᄒᆞ신이 낭ᄌᆞ ᄒᆞ날을 우려려 통곡한이 월싀갓튼 두 귀미히 흘너난이 눈무리요 옥설갓튼 두 다리의 솔난이 유혈이라[26]

> ㉡ 낭ᄌᆞ 손을 잡고 낫츨 한ᄐᆡ ᄃᆡ이고 통곡ᄒᆞ여 이로ᄃᆡ 〻공 망영되야 네여 졍졀을 몰ᄂᆡ고 이지경이 되야ᄂᆞᆫ이 네의 졍별은 ᄂᆡ가 아난지라 별다의로라다 기운울 진정하라 ᄒᆞ신이 낭ᄌᆞ 엿ᄌᆞ오되 엿말삼의 ᄒᆞ여시되 도적긔 ᄯᅥ난 볏고 창여의 ᄯᅥ난 벗지 못한다 ᄒᆞ온이 엇지 이런 누명을 입고 살기을 바ᄅᆡ리요 쥬거 모로미 올타 ᄒᆞ고 ᄒᆞ셧려거날[27]

이후 숙영의 결백함이 밝혀졌지만 숙영은 도적의 누명은 벗을 수 있지만 훼절의 의혹은 결코 풀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결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의 정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맹목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숙영이 백공에게 매를 맞고 자결하는 사건이 경상도 안동을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에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민의 극심한 정절 이데올로기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28]

실제 『조선왕조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신속삼강행실도』

---

26) 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 205.

27) 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p. 206-207.

28)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가사계 소설 〈김부인열행록〉은 〈숙영낭자전〉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여성의 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 - 〈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pp. 100-106).

·『여지도서』·『경상도읍지』 등과 사료에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영남 지역에서 정표를 받은 열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은 안의 현감으로 있을 때 함양으로 시집간 박씨의 순절을 내용으로 하는 〈열녀함양박씨전〉과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숙영낭자전〉의 작중 배경인 안동은 성주 다음으로 정표를 받은 열녀의 수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29] 그런데 정표를 받은 열녀 가운데는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상민·중인·천민·첩의 신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영남 지역에서의 정절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여성들의 수난은 상당히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30] 약가, 향랑과 같은 인물은 평민 여성이지만 경북 선산 지역의 열녀로 칭송받고 있다. 그리고 향랑이 불렀다는 〈산유화가〉와 오빠로부터 훼절의 누명을 쓰고 자결한 누이의 노래인 〈쌍가락지 노래〉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31]

그러나 정절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여성들의 수난은 비단 〈숙영낭

---

29) 박주, 「조선시대 경북 지역의 열녀」, 「조선시대 경남 지역의 열녀」, 「조선시대 대구 지역의 효자, 열녀」,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pp. 23-157.
앞서 언급한 〈김부인열행록〉 또한 성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여성의 열행을 다룬 작품이다(서인석, 앞의 논문, pp. 81-82).

30) 박주, 앞의 책, pp. 56-75, 103-130, 156-157.
박지원이 〈열녀함양박씨전〉을 쓴 의도 또한 열녀 또는 여성의 순절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김혈조, 「연암의 〈열녀함양박씨전〉 재고 - 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24, 2006, p. 366).

31) 정출헌,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선산지방의 향랑이 '국가 열녀'로 탄생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pp. 145-151; 최지녀, 「향랑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향랑전과 향랑전설」, 국문학회, 『국문학연구』 19, 2009, pp. 258-263; 서영숙,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 구조와 전승 양상」,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65, 2010, pp. 207-237; 이미영, 「〈쌍가락지 노래〉의 욕망, 그리고 저항의 목소리」,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40, 2014, pp. 117-144.

자전〉의 배경이자 창작 및 향유 공간인 조선 후기 영남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시대 여성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절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하층 여성들에게까지 정절은 이데올로기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수난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화홍련전〉과 같이 훼절의 누명을 쓰고 살해당하는 수난을 겪거나 〈위씨절행록〉을 비롯하여 〈춘향전〉 〈월하선전〉 〈동선기〉 등과 같이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이 수절하는 과정에서 수난을 겪는 모습들이 형상화된 작품들이 대거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처럼 조선 시대 정절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여성의 수난은 극심했고 정절의 모해로 수난을 겪는 여성들의 모습은 고전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사였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정절 이데올로기로 인한 여성들의 수난이 극심했던 현상을 고려한다면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훼절의 누명을 쓰고 시부인 백공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결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 〈숙영낭자전〉은 충분히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2] 따라서 조선 후기 정절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영남 지역 여성들의 극심했던 수난은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3.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

〈숙영낭자전〉은 숙영의 죽음 이후 서사의 내용이 다양한 형태

32) 더구나 18세기 경북 선산에서 있었던 향랑과 관련된 고사가 전·한시·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변용되어 20세기 전반 『신한민보』·『동아일보』·『별건곤』·『삼천리』 등의 신문과 잡지에도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지녀, 앞의 논문, 256~279쪽).

로 전개되는데 선행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결말의 형태에 따라 이본을 4계열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숙영낭자전〉의 이본 계열[33]

계열	연번	제목	형태	장수	소장자 및 소장처
1	①	〈슈경낭ᄌᆞ젼〉	국문 필사	46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 전집』48
	②	〈슈경낭전〉	〃	28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 전집』19
	③	〈슈경낭자젼니라〉	〃	61	국립도서관 소장본
	④	〈슈경ᄂᆞᆼᄌᆞ젼〉	〃	27	사재동 소장본, 『숙영낭자전』 1
	⑤	〈슉행낭자젼 권지일이라〉	〃	48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27
	⑥	〈수경낭자젼〉	〃	33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69
	⑦	〈슈경낭자젼이라〉	〃	44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70
	⑧	〈슈경옥낭ᄌᆞ젼니라〉	〃	47	조동일 소장본, 『숙영낭자전』1
2	①	〈슈경낭ᄌᆞ젼〉	〃	37	고려대 소장본, 『숙영낭자전』1
	②	〈수경낭ᄌᆞ전〉	〃	32	사재동 소장본, 『숙영낭자전』1
	③	〈수경낭자전단〉	〃	46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69
	④	〈옥낭ᄌᆞ전이라〉	〃	31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76
	⑤	〈낭자전이라〉	〃	35	〃
	⑥	〈슈경낭ᄌᆞ젼 권지단〉	〃	44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26

33) 선행 연구 〈숙영낭자전〉의 이본 계열을 분류한 논의를 토대로 이본을 추가하여 보완하여 정리했다(김일렬, 앞의 논문, p. 8; 서혜은, 앞의 논문, pp. 89-90 참조).

	⑦	〈낭ᄌᆞ전단〉	〃	58	〃
	⑧	〈수경낭자전〉	〃	68	〃
	⑨	〈슈경낭자전〉	〃	48	〃
	⑩	〈수경낭ᄌᆞ전이라〉	〃	36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70
	⑪	〈슈경낭ᄌᆞ젼이라〉	〃	33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전집』44
	⑫	〈슈경낭자젼〉	〃	28	영남대 소장
	⑬	〈수경낭자/수경낭자젼〉	〃	34	경북대 소장
	⑭	〈수경옥낭좌 권지단이라〉	〃	48	경남대 소장
3	①	〈슈경낭ᄌᆞ젼〉	〃	24	『김광순 소장 한국 필사본 고소설전집』 19
4	①	〈슉영낭ᄌᆞ젼〉	〃	33	〃
	②	〈淑英娘子傳 슈영낭자젼〉	〃	22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27
	③	〈슉영낭ᄌᆞ젼 단〉	경판	28	대영박물관 소장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4
	④	〈슉영낭ᄌᆞ젼 단〉	경판	20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2
	⑤	〈슉영낭ᄌᆞ젼 단〉	〃	16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2
	⑥	신구서림 간행 〈특별 슉영낭ᄌᆞ뎐〉	활자본	22	『구활자본 고소설전집』5
	⑦	한성서관 간행 〈슉영낭ᄌᆞ젼권단〉	〃	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숙영낭자전〉의 작품 세계』3
	⑧	대동서원 간행 〈특별 슉영낭자젼〉	〃	37	〃
	⑨	대동서원 간행 〈특별 슉영낭ᄌᆞ젼〉	〃	15	〃
	⑩	경성서적조합소 간행 〈특별 슉영낭ᄌᆞ젼〉	〃	〃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3계열은 모두 필사본으로 구성된 반면에 4계열은 필사본·경판본·활자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경판본과 활자본이 지속적으로 출간된 것으로 보아 〈숙영낭자전〉의 여러 이본 가운데 4계열은 대중 독자층이 특히 선호했던 서사였을 가능성은 높다. 앞서 분류한 1~4계열에 해당하는 〈숙영낭자전〉의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숙영낭자전〉의 이본 계열과 그 서사

	1계열	2계열	3계열	4계열
①	숙영과 선군의 만남과 부부 생활			
②	과거로 인한 숙영과 선군의 헤어짐			
③	숙영에 대한 시비 매월의 모해			
④	백공의 숙영에 대한 폭행과 자백의 강요			
⑤	숙영의 자결			
⑥	선군의 과거 급제			
⑦	백공과 임진사의 정혼			
⑧	선군의 환향			
⑨	백공의 임소저와의 혼인 권유와 선군의 거부			
⑩	선군의 돌쇠와 매월의 처벌과 숙영의 장례			축약
⑪	숙영의 재생		×	
⑫	선군과 숙영의 옥연동에서의 만남과 헤어짐	×	×	×
⑬	임진사와 임소저의 갈등과 선군과 임소저의 혼인		×	확장
⑭	선군, 숙영, 임소저의 원만한 가정생활		×	
⑮	선군과 숙영의 승천		×	선군, 숙영, 임소저의 승천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①~⑨까지는 공통되지만 선군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숙영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매월과 돌쇠를 처벌하고 숙영의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서부터는 변별되는데 경판본과 활자본이 포함된 4계열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은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4계열에 포함되며 활자본보다 선행한 경판본을 대상으로 선군의 환향 이후 결말의 내용이 충실하게 전개되는 1계열에 속하는 필사본 이본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숙영낭자전〉이 안동을 배경으로 영남 지역에서 향유된 서사라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1계열의 경우 안동에서 필사된 것으로 확인되는 김광순 소장 46장본 〈슈경낭ᄌᆞ젼〉을, 4계열에 속하는 경판본 가운데 가장 먼저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경판 28장본 〈슉영낭자젼 단〉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1)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완화

앞의 【표 3】에서도 확인되듯이 1계열과 4계열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4계열에서는 숙영의 장례 장면이 대폭 축소되어 있으며 숙영의 재생 이후 선군이 옥연동 너머 연주산으로 오가면서 숙영과 만나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1계열에 속하는 김광순 소장 46장본에서는 선군의 꿈에 숙영이 나타나 옥연동 못가에서 장례를 지내달라고 하자 선군은 춘향, 동춘과 숙영의 장례를 지낸다. 아래의 인용문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숙영을 위해 쓴 선군의 제문에는 숙영을 잃은 선군의 슬픔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① (상략) 할임이 할글읍셔 하날을 우어려 무수이 탄식하든이 져건득하여 쳔지 아덕하면 일월이 변셕하며 무러시ᄉᆞ로 ᄌᆞ〃지난지라 (중략) 셩군이 방셩통곡하여 물을 향하야 무수이 탄셕하고 제문지여 졔ᄉᆞ홀ᄉᆡ 그 졔문의 하여시되 유셰ᄎᆞ 모연 모월 모일의 할 임 학ᄉᆞ 빅셩군은 소고우 망실유 낭ᄌᆞ 실영 지하의 올이난이 실푸다 삼ᄉᆡ연분으로 그ᄃᆡ을 만ᄂᆡ 빅연동낙할가 바ᄅᆡ숩든이 인간이 시기한지 귀신 ᄌᆞ한지 이별 수월의 쳔만 ᄋᆡ망ᄒᆞᆫ 일노 구쳔의 외로운 혼빅이 되어ᄉᆞ온이 엇지 실푸지 안이ᄒᆞ오리요 답〃한 이ᄂᆡ 진졍 누야셔 다 알손양 낭ᄌᆞ난 셰ᄉᆞᆼ만ᄉᆞ을 다 잇고 황쳔 갓건이 와 셩군은 어린 ᄌᆞ셕을 다리고 고향으로 눈물로 셰월을 보ᄂᆡ온 이 답답하기 그지 업ᄉᆞ면 (중략) 주과 포혜로 은근고하온이 추비타 마옵시고 힘힝ᄒᆞ옵소셔 하고셔 여운이 보난 ᄉᆞ암이 뉘 안이 셔여하리요[34]

하지만 아래의 인용문 ②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계열에서는 장례 장면 자체가 대폭 축약되어 있으며 선군이 쓴 제문 또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숙영을 잃고 슬퍼하는 선군의 모습 또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4계열에는 숙영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선군의 모습이 제시된 것은 1계열과 변별된다.

② (상략) 낭ᄌᆞ의 신체 압히 놋코 두어 줄 제문을 나리오니 제문의 왈 셩인도 세욱ᄒᆞ고 숙녀도 봉참ᄒᆞ믄 고왕소금ᄂᆡ의 비〃유지라 ᄒᆞ니 낭ᄌᆞ갓튼 지원 극통ᄒᆞᆫ 일이 어듸 다시 이스리오 〃회라 도시 션군의 탓시니 슈원 슈귀리요 오ᄂᆞᆯ 〃 ᄆᆡ월의 원슈는 갑홧거니와 낭ᄌᆞ의 화용월틱를 어듸가 ᄃᆞ시 보리오 다만 션군이 쥭어 지하의 가 낭ᄌᆞ를 조츨거시니 부모의게 불회되나 〃의 쳐치 불구ᄒᆞ리로다 ᄒᆞ고 니저기를 밧치ᄆᆡ 신체를 어로 만지며 일장 통곡ᄒᆞᆫ 후 돌이를 본읍의 보ᄂᆡ여 절도 졍비ᄒᆞ니라[35]

---

34) 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p. 239-241.
35)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 456.

또한 4계열에서는 숙영의 재생 이후 선군이 숙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계열에서 숙영의 재생 이후 선군과 숙영의 애정이 성취되지 않고 한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선군이 숙영이 있는 곳을 왕래하는데, 이는 숙영의 재생 이후에도 계속되는 백공으로 인한 선군과 숙영의 애정 갈등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인용문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군은 재생 이후 연주산에 머무는 숙영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했지만 숙영은 훼절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부모의 사후 다시 천상에서 인연을 맺고 적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용문 4에서 확인되듯이 4계열에서는 숙영의 재생 이후 특별한 갈등의 과정 없이 숙영과 선군의 애정은 성취된다.

> 3 (상략) 낭ᄌᆞ을 두고 갈 ᄯᅳᆺ지 읍ᄉᆞ온 함긔 가ᄉᆞ이다한ᄃᆡ 낭ᄌᆞ 답왈 근은 누명이 다으온이 엇지 닷시 세상의 나여가올잇가 ᄌᆞ식을 다여온 후의 부모 사후의 ᄉᆡ로 쳔상의 올나와 연분을 다시 ᄆᆡ ᄌᆞ 빅연동 낙하ᄉᆞ이다 하며 도라가 길을 통졘〃〃한이 부모와 ᄌᆞ식을 잇지 모하고 ᄯᅩ 낭ᄌᆞ 밀망이 동원하난고로 마지못하여 낭ᄌᆞ을 하직하고 도라셔 본직 오운의 사이여 쳥상으로 가고 형젹이 망연한지라[36]

> 4 션군이 놀나 신체를 만져본즉 온긔 완연ᄒᆞ여 ᄉᆡᆼ긔 닛는지라 심즁의 ᄃᆡ희ᄒᆞ여 일변 부모를 쳥ᄒᆞ여 삼과를 다려 입에 흘리며 슈족을 쥐무ᄅᆞ니 〃윽ᄒᆞ여 낭ᄌᆡ 눈을 ᄯᅥ 좌우를 돌나보거ᄂᆞᆯ 구고와 션군의 즐거ᄒᆞ믈 엇지 측냥ᄒᆞ리오[37]

1계열에서 확인되는 숙영의 장례 과정에서 부각되어 있는 선군

36) 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 245.
37)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 457.

의 슬픔과 숙영의 재생 이후에도 지속되는 선군과 숙영의 애정 갈등은 모두 백공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가문의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가부장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백공으로 인해 과거에 전혀 뜻이 없었던 선군은 과거 길에 올랐고 숙영을 잊지 못해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숙영은 훼절의 누명을 쓰고 자결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에서는 백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4계열의 경우 숙영의 장례 과정은 대폭 축소되어 숙영을 잃은 선군의 슬픔은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숙영은 재생 이후 갈등 과정 없이 선군 및 백공 부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8] 따라서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부장 백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숙영낭자전〉과 소설의 유형은 다를지언정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는 〈장화홍련전〉 〈정수정전〉 〈심청전〉과 같은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39] 더구나 〈숙영낭자전〉이 가문의 명예를 중시했던 영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부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완화된 측면은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가 두드러진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8) 〈숙영낭자전〉의 4계열에 속하는 경판본의 경우 28·20·16장본이 현전하는데 28장본과 20장본은 장수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16장본에서는 죽은 숙영의 시신을 붙들고 아들 동춘이 통곡하는 장면과 과거 급제 후 집으로 돌아온 선군이 숙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는 장면까지 상당히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58, 2014, p. 539).

39) 서혜은, 앞의 논문(2007), pp. 60-75.

2) 여성 인물들의 節行과 烈行의 부각

1~3계열과 달리 백공에 대한 저항 행위였던 숙영의 자결 사건이 4계열에서는 열행으로 규정된다. 4계열에 속하는 이본의 결말에서 숙영은 정렬부인의 직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비 매월의 모해로 훼절의 누명을 쓰고 자결한 숙영의 행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행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4계열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적인 면모이다. 그런데 4계열에서는 아래의 인용문 [1]에 제시된 것처럼 숙영뿐만 아니라 임소저 역시 숙렬부인의 직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계열과 비교했을 때 4계열에서는 선군과 임소저와 혼인으로 인한 선군과 백공의 대립보다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40]

> [1] 션군이 문득 ᄭᆡ다라 응낙ᄒᆞ고 즉시 치힝ᄒᆞ여 샹경ᄒᆞ여 옥졔의 입ᄂᆡ 슉비ᄒᆞ고 슈일 쉬여 낭ᄌᆞ의 ᄉᆞ연과 님녀의 셜화를 일일이 베피샹소ᄒᆞᆫᄃᆡ 샹이 남좌의 칭찬 왈 낭ᄌᆞ의 일은 쳔고의 희한ᄒᆞᆫ ᄇᆡ니 졍녈부인 직쳡을 주라 ᄒᆞ시고 님녀의 졀개 또ᄒᆞᆫ 아름다오니 특별히 ᄇᆡᆨ션군과 결혼ᄒᆞ라 ᄒᆞ시고 슉녈부인 직쳡을 주시니 션군이 ᄉᆞ은ᄒᆞ고 슈유를 어더 밧비 환가ᄒᆞ여 이 ᄉᆞ연으로 님가의 통ᄒᆞ니 님가의셔 희츌망외ᄒᆞ여 ᄐᆡᆨ일 셩네ᄒᆞᆯᄉᆡ 신부의 화용월ᄐᆡ 진짓 슉네 가인이라 구가의 도라와 효봉구고ᄒᆞ고 승슌 군자ᄒᆞ며 낭ᄌᆞ로 더브러 지긔 샹득ᄒᆞ여 슈유 불니러라[41]

아래의 인용문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계열에 속하는 46장본 〈슈경낭ᄌᆞ젼〉에서는 선군과의 정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부친 임진사에게 임소저가 烈女不敬二夫를 내세우면서 식음을 전폐하자 임진사는 임소저의 뜻을 받아들여 백공에게 선군과 혼인할 뜻을 밝

40) 서혜은, 앞의 논문(2007), pp. 92-93 참조.
41)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 458.

히고 난 후 임소저는 선군과 혼인하는 서사로 전개된다.

> 2 잇ᄃᆡ 임진ᄉᆞ 셩군을 낭ᄑᆡ하고 다은 가문을 의논한이 소졔 죽긔로 엿ᄌᆞ오ᄃᆡ 충신은 불ᄉᆞ이군이요 열여난 불경이부라 하온이 엇지 다은 가문을 취하올잇가 하면 음식을 졔폐한이 진ᄉᆞᄂᆡ외 망극하여 그 ᄉᆞ연으로 ᄉᆞ고와 할임긔 편지하여 원망하면 닷시 ᄉᆞ약와 힝예하물 빅여 당부한이(중략)날을 보와 답장한이 진ᄉᆞᄂᆡ외 당향이 여기여 비을 갓초오고 일가 노속을 모와 호인을 기다이던이 셩군이 날을 당하ᄆᆡ 상공이 ᄇᆡ힝하여 초려를 극진이 친후의 직시 신힝하여 시가의 ᄉᆞ공 양위가 예을 돌인 후의 금실낙을 이루나 셩군은 주야 낭ᄌᆞ싱각만 간졀한지라[42]

그러나 4계열에서 임소저는 선군과의 정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임진사에게 불효가 될지언정 순절하여서라도 선군에 대한 절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더구나 아래의 인용문 3에서도 확인되듯이 임소저는 선군과 혼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43] 이러한 면모를 감안했을 때 4계열에서는 선군과의 혼인 문제로 인한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이 1계열에서보다 첨예화된 것으로 보인다.

> 3 각셜 이젹의 님진ᄉᆞ 집의셔 슉영낭ᄌᆞ의 부ᄉᆡᆼᄒᆞ물 듯고 납치를 화퇴ᄒᆞ고 달니 구혼ᄒᆞ려ᄒᆞ더니 쳐지 이 ᄉᆞ연을 듯고 부모긔 고왈 녀지 되어 의혼ᄒᆞᄆᆡ 귀가 납치를 ᄇᆞ다스면 그 집 ᄉᆞ름이 분명ᄒᆞᆫ지라 빅ᄉᆡᆼ이 상쳐ᄒᆞᆫ 쥴 알고 부모의셔 허락ᄒᆞ엿더니 그녀지 긱ᄉᆡᆼ ᄒᆞ여신즉 국법의 냥쳐를 두지 못ᄒᆞᆷ 결혼ᄒᆞᆯ 의ᄉᆞ는 두지

42) 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p. 246~247.

43)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일부일처를 혼인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했으나 고려시대 多妻와 蓄妾의 풍조로 인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축첩 현상과 경제적 부담」,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33, 2008, p. 322).

> 못ᄒᆞ려니와 소녀의 정긔즉 ᄆᆡᆼ셰코 다른 가문의는 아니 갈 허이오니 그런 말숨은 다시 마옵소셔 ᄒᆞ거ᄂᆞᆯ 님진ᄉᆞ 부쳬 이 말를 드ᄅᆞᄆᆡ 어히 업셔 가치 아닌 쥴노 닐으고 가랑을 광구ᄒᆞ더니 그 후의가 항체이셔 의논이 분〃ᄒᆞ거ᄂᆞᆯ 님소졔 듯고 부모긔 고왈 이왕의도 고ᄒᆞ엿습거니와 혼ᄉᆡ 니럿틋 살난하오믄 도시 소녀의 팔지 그박ᄒᆞ온 연괴라 비록 ᄂᆡ직이라도 일언이 즁쳔금이라 집심이 〃ᄆᆡ 금셕 갓ᄉᆞ오ᄆᆡ 종신토록 부모 슬하의셔 일싱을 안과ᄒᆞ미 원이여ᄂᆞᆯ 이졔 또 혼ᄉᆞ를 의논ᄒᆞ시니 이는 부모의게 ᄇᆞ라는 ᄇᆡ 아니라 부모긔 불회될지라도 ᄎᆞ라리 ᄌᆞ회ᄒᆞ여 이비를 좃고져 ᄒᆞ오니 부모는 혼ᄉᆞ의 일 단념ᄒᆞᄉᆞ 소녀를 일변의 치워두소셔ᄒᆞ고 사긔 맹녈 ᄒᆞ거ᄂᆞᆯ(하략)[44]

그렇기 때문에 위 인용문 ①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계열과 달리 4계열에서 선군과 임소저의 혼인은 임금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 과정에서 임소저의 절행이 제시된 것은 동일하지만 이들의 대립이 첨예화된 4계열에서는 임소저의 절행은 1계열에서보다 부각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숙렬부인의 직첩을 받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숙영낭자전〉 4계열의 결말 부분에서처럼 여성의 열·절행을 인정해 주면서 임금이 직첩을 내리는 것은 〈장한절효기〉 〈정수정전〉 〈김인향전〉 〈양풍운전〉 〈춘향전〉 〈월하선전〉 〈동선기〉 등 소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4계열에 부각되어 있는 임소저와 숙영의 절행과 열행은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면모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숙영낭자전〉이 여성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수난이 극심했던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열·절행이 부각된 현상은 영남의 지

44)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 457.

역적 특징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측면으로 보인다.

4.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의미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완화되고 여성의 절행과 열행이 부각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숙영으로 인한 백공과 선군의 대립은 완화되고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은 강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백공과 선군의 대립과 임진사의 임소저의 대립은 모두 부모와 자식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다. 하지만 백공과 선군의 대립에서는 백공의 가문의식이,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에서는 임소저의 맹목적인 절행이 대립의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백공과 선군의 대립은 완화되고 임진사와 임소저의 대립이 강화되는 면모는 결국 〈숙영낭자전〉 고유의 문제의식이 축소되면서 보수적 성향이 가미되어 통속화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대체로 통속화되는 현상은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본 장에서는 2, 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향유된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孝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 질서의 강화

〈숙영낭자전〉은 부모와 자식의 대립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숙영낭자전〉의 1~4계열 이본은 모두 선군의 부친인 백공으로 인해 선군과 숙영이 애정 갈등을 겪고 숙영이 자결하는 서사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영의 죽음과 그로 인해 선군이 겪는 고통에는 가부장인 백공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지만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45] 앞의 【표 2】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숙영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김광순 소장 24장본 〈슈경낭ᄌᆞ젼〉 단 1종에 불과하며 경판본과 활자본이 포함된 4계열에서는 백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숙영의 장례 장면은 대폭 축약되어 있고 숙영의 재생 이후 숙영과 선군이 겪는 애정 갈등 또한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46]

〈숙영낭자전〉의 주요 사건인 숙영과 선군이 겪는 애정 갈등과 숙영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원인은 분명 가부장인 백공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숙영낭자전〉을 효와 애정의 대립을 통해 효의 가치가 격하되고 애정의 가치가 승화된 작품으로 논의되었다.[47] 하지만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완화된 것은 효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제 질서가 조선 후기 사회에 여전히 완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숙영의 자결과 자결한 시체가 요지부동하고 숙영의 죽음으로 인한 선군의 한탄과 재생한 숙영이 선군과 함께 백공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백공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행동이자 백공에 대한 저항 행위이다.[48] 그러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

45) 서혜은, 앞의 논문, 2007, pp. 91-93.

46) 〈숙영낭자전〉의 대중 독자층들은 백공으로 인해 숙영과 선군이 갈등과 시련을 겪는 과정보다는 애정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47) 김일렬, 앞의 책, pp. 52-61.

48) ① 숑공이 붓쳐와 노복 등이 놀닉여 일시의 드러간이 낭ᄌᆞ 가삼의 칼을 쏩고 듁것난지라 황〃 분듀ᄒᆞ여 칼을 쎅려한이 원혼이 되야 칼이 빠지〃 안이ᄒᆞ난지라(46장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 215)
② 선군이 도라오기 져의 신체을 염습ᄒᆞ미 올타ᄒᆞ고 상공이 직시 방의 드려가 염습하려흔이 신체가 ᄌᆞ리예 붓고 써려지〃 안이한이(하략)(46장

었던 조선 시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당했고 부모에 대한 효는 자식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실천 윤리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숙영낭자전〉이 대중화되면서 백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완화된 것은 조선 후기 실천 윤리로서 보편화된 효에 대한 인식과 효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된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4계열에서 축약되고 삭제된 숙영의 장례 장면과 숙영의 재생 이후 선군이 숙영과 만나는 공간은 옥연동이다. 〈숙영낭자전〉의 공간적 배경은 안동과 옥연동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옥연동에서는 숙영의 장례와 함께 숙영과 선군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중성을 확보한 4계열에서는 옥연동의 공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소설의 서두에서 선군과 숙영이 만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동을 배경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색은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 지역이 보수적인 유교 문화가 발달하고 가문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숙영낭자전〉이 대중화되면서 효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된 측면은 영남 지역의 특성이 더욱 짙게 부각된 결과로 생각된다.

2) 양반 사대부 취향의 여성관과 혼인관의 부각

〈숙영낭자전〉은 양반 신분인 선군과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민 여성인 숙영의 애정 서사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소설 속 선군은 양반 신분이지만 가문 중심의 혼인을 거부하고 본능적 욕망에 따

본 〈슈경낭ᄌᆞ젼〉, 앞의 책, p. 218)

라 숙영과 혼인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공은 선군과 숙영이 두 명의 자식을 낳고 8년 동안 동거하지만 육례를 갖춘 정식 혼례는 올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군이 과거를 보러 간 후에 끊임없이 숙영을 의심하며 결국 시비 매월의 모해로 숙영이 훼절했다 생각하고는 숙영에게 극심한 매질까지 한다. 결국 숙영의 결백함이 밝혀졌으나 숙영은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고 만다. 따라서 숙영의 자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부인 백공에 대한 일종의 저항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영낭자전〉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주로 여성들이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49]

하지만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양반 사대부적 시각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경판본과 활자본이 포함된 4계열에서 숙영의 자결은 시부 백공에 대한 저항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선의 통치 수단인 유교 이념에 순응하는 행위로 변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4계열에 속하는 이본의 결말에서 숙영의 자결이 정렬부인의 직첩을 받는 열행으로 규정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임소저의 선군에 대한 수절 또한 숙영과 마찬가지로 숙렬부인의 직첩을 받음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행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49)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순호 소장 35장본 〈낭자전이라〉의 경우 책주인은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그리고 【표 2】에서 1계열로 분류한 김광순 소장 46장본 〈슈경낭ᄌᆞ젼〉과 28장본 〈슈경낭전〉의 경우 여성이 필사한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광순 소장 14장본 〈숙형전〉, 28장본 〈슈경낭전이라〉, 단국대 소장 34장본 〈슉영낭자전이라〉, 박순호 소장 33장본 〈수경낭자전이라〉, 46장본 〈옹낭자전 상이라〉와 같은 필사본에서도 여성이 향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유경의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김선현, 앞의 논문, 2014, pp. 31-42; 이유경, 「'낭만적 사랑이야기'로서의 〈숙영낭자전〉 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28, 2014, p. 182. 각주 30번).

더구나 아래의 인용문1에서도 확인되듯이 4계열에서는 숙영의 죽음 이후 재생하기 전 천상계의 개입을 통해 숙영의 죽음이 전적으로 숙영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군과 숙영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군과 임소저의 관계 역시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운명이었음을 밝힘으로서 백공에 대한 잘못을 무마하고 선군과 임소저의 혼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 1 문득 낭ᄌᆞ 화복여식으로 완연히 드러와 션군긔 ᄉᆞ례 왈 낭군의 도량으로 쳡의 원슈를 갑하 쥬시 그 은혜 결초 보은하여도 오히려 다 갑지 못ᄒᆞ리로다 작일의 옥졔 조회 바드실ᄉᆡ 쳡을 명초ᄒᆞ사 ᄭᅮ지져 갈아ᄉᆞᄃᆡ 네 션군과 맛ᄂᆞᆯ 긔한이 닛거ᄂᆞᆯ 능히 참지 못ᄒᆞ고 십년을 젼긔ᄒᆞ여 인연을 ᄆᆡ잣는 고로 인간의 ᄂᆞ려가 ᄋᆡ ᄆᆡᄒᆞᆫ 일노 비명황ᄉᆞ ᄒᆞ미니 장ᄎᆞᆺ 누를 원하며 누를 한ᄒᆞ리오 ᄒᆞ시ᄆᆡ 쳡이 ᄉᆞ죄ᄒᆞ여 고ᄒᆞ되 (중략) 또 남극셩을 명ᄒᆞᄉᆞ 슈한을 졍ᄒᆞ라 ᄒᆞ신즉 남극셩이 팔십을 졍ᄒᆞ여 삼인이 동일 승쳔ᄒᆞ게 ᄒᆞ라 하엿기로 쳡이 옷계긔 엿ᄌᆞ오되 션군과 쳡ᄲᅮᆫ이여ᄂᆞᆯ 엇지 삼인이라 ᄒᆞᄂᆞ니잇고 ᄒᆞᆫ즉 옥졔 말ᄉᆞᆷ이 너의 ᄌᆞ연 삼인이되리니 텬긔을 누셜치 못ᄒᆞ리라 ᄒᆞ시고(하략)[50]

> 2 일은 ᄃᆡ연을 ᄇᆡ셜ᄒᆞ여 ᄌᆞ녀 부ᄉᆞᆫ 등을 다리고 삼일를 즐기더니 홀연 상운이 ᄉᆞ면으로 둘너드러오면 붕의 소ᄅᆡ 진동ᄒᆞ는 곳의 일위 션관이 나려와 불너 왈 션군아 이간 ᄌᆞ미 엇더ᄒᆞ뇨 그ᄃᆡ의 삼인이 상텬ᄒᆞᆯ 긔약이 오날이오니 밧비 가ᄌᆞ ᄒᆞ거ᄂᆞᆯ 션군 삼인이 일시의 상텬ᄒᆞ니 향년이 팔십이라 ᄌᆞ녀 등이 공즁을 ᄇᆞ라고 벽용이통ᄒᆞ고 션산의 허장ᄒᆞ니 일이 긔이 ᄒᆞ기로 ᄃᆡ강ᄒᆞ노라[51]

그렇기 때문에 임소저의 입을 빌어 양처(良妻)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소설 속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면서

50)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p. 456-457.
51) 경판 28장본 〈슉영낭ᄌᆞ젼 단〉, 앞의 책, p. 458.

도 4계열에서는 임금의 명령에 의해 선군과 임소저가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52]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 선군이 숙영과 임소저와 함께 승천함으로써 천상계의 개입을 통해 선군이 양처를 두는 것에 대한 정당함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숙영과 임소저의 열행과 절행이 강조된 현상은 궁극적으로 양반 사대부 취향의 여성관과 혼인관이 부각된 면모로 보인다. 더구나 〈숙영낭자전〉이 양반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안동을 배경으로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했던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숙영낭자전〉의 대중성 획득 과정에서 여성과 혼인에 대한 양반 사대부적 취향이 부각된 면모는 영남의 지역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상도 안동을 배경으로 영남 지역에서 형성되고 향유된 〈숙영낭자전〉을 영남의 서사로 규정짓고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본 논문에서 전개한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영낭자전〉은 조선 후기 영남 지역 몰락 양반들의 가문의식과 정절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영남 지역 여성의 수난으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완화되고 숙영과 임소저의 열행과 절행이 부각되었다. 셋째,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에는 효에 대한 인식과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되고 양반 사대부 취향의 여성관과 혼인관이 부각되었다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

52) 3장 2절의 인용문 ② 참조.

다. 이처럼 영남의 서사로 전개되는 〈숙영낭자전〉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는 작품이었다. 따라서 〈숙영낭자전〉은 영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작품이자 작품에 반영된 영남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는 〈숙영낭자전〉이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고 향유된 〈숙영낭자전〉을 조선 후기에 대중성을 확보한 고전소설로 규정했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은 조선 후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영남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 영남의 서사로 규정지을 수 있는 〈숙영낭자전〉의 대중성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고전소설 〈숙영낭자전〉은 2013년 극단 모시는 사람들에 의해 '〈숙영낭자전〉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연극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53] 그리고 이 공연은 'A romance'라는 제목으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54] 이러한 현상 또한 조선 후기 영남의 지역 문화가 반영된 〈숙영낭자전〉이 획득한 대중성을 입증하는 면모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표 2】에 제시된 33종의 이본을 검토한 후에 안동에서 필사된 것으로 확인되는 김광순 소장 46장본과 경

53) 비록 〈숙영낭자전〉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었던 영남 지역에서는 공연되지 못했으나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완강한 가부장에 의해 며느리 숙영이 희생되는 서사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최윤영, 「〈숙영낭자전을 읽다〉에 나타난 전통변용양상 - 고소설연행과 관련하여 -」,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40, 2013, pp. 165-199; 구현경, 「〈숙영낭자전〉을 읽다」,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공연과 이론』 49, 2013, pp. 268-272; 김태희, 「서사텍스트, 무대 안으로 들어오다, 〈숙영낭자전을 읽다〉〈손택: 다시 태어나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연극평론』 72, 2014, pp. 124-128).

54) 극단 모시는 사람들, 언론기사 & 공연후기, http://www.modli.com, 2015. 5. 25 검색.

판 28장본을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영남의 서사로 전개되는 〈숙영낭자전〉의 대중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하지만 【표 1】의 ⑧⑨에서도 제시했듯이 영남 지역에서 필사된 이본 가운데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이본이 존재한다. 또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는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6종의 〈숙영낭자전〉 이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숙영낭자전〉이 영남의 서사로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본들은 비록 필사본이지만 〈숙영낭자전〉이 획득한 대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여러 한계점에 대한 보완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숙영낭자전〉의 여러 이본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미루면서 이상의 논의를 마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숙영낭자전〉의 이본은 【표 2】로 대신함.
박송희 편·박황, 최종민 감수, 『박녹주 창본』, 집문당, 1988.
안동민, 〈淑英娘子傳〉, 『한국문학대전』 12, 예서각, 1977.
임석재 채록, 〈봉산탈춤〉, 『한국고전문학전집』 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서거정 지음·박경신 역주, 『태평한화골계전』 1, 국학자료원, 1998.

2. 논문

강성숙, 「효행 설화 연구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효행 양상을

5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뿌리깊은나무 02 – 한글 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디자인 길, 2013, p. 35.

중심으로 –」,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48, 2012, pp. 8–39.
구현경, 「〈숙영낭자전〉을 읽다」,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공연과 이론』 49, 2013, pp. 268–272.
김덕균, 「『세종실록』을 통해 본 조선초 효문화의 특징과 문제」,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19, 2014, pp. 31–63.
김만수,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에 대하여」, 한국극예술학회, 『한국 극예술연구』 6, 1996, pp. 303–335.
김미령, 「〈숙영낭자전〉 서사에 나타나는 대중성」,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25, 2013, pp. 195–220.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련동」,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pp. 281–308.
김선현,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공간 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4, pp. 1–175.
김영태, 「〈수겡옥낭좌전〉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 9, 1992, pp. 5–14.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24, 2007, pp. 219–252.
김정대, 「〈수겡옥낭좌전〉에 반영된 경상도 방언 문법적 요소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 9, 1992, pp. 77–111.
김종철,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난대 이응백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한샘출판사, 1992, pp. 831–856.
김태희, 「서사텍스트, 무대 안으로 들어오다, 〈숙영낭자전을 읽다〉 〈손택: 다시 태어나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연극평론』 72, 2014, pp. 124–128.
김혈조, 「연암의 〈열녀함양박씨전〉 재고 – 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24, 2006, pp. 339–374.
김형철, 「〈수겡옥낭좌전〉의 어휘 연구」,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 9, 1992, pp. 15–41.
민혜성, 「정정렬과 박록주 〈숙영낭자전〉의 비교 분석 연구」, 판소리학회, 『판소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4, pp. 87–171.
박창원, 「경남 방언의 모음변화와 상대적 연대순 – 필사본 〈수겡옥낭좌전〉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가라문화』 9, 1992, pp. 43–76.
서영숙,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 구조와 전승 양상」,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65, 2010, pp. 207–237.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 중앙어문학

회, 『어문론집』 58, 2014, pp. 177–198.
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 – 〈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pp. 100–106.
서혜은, 「경판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p. 1–200.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58, 2014, pp. 519–555.
성현경,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의 비교 – 소설의 판소리화 과정 연구 –」, 판소리학회, 『판소리연구』 6, 1995, pp. 5–53.
손경희, 「〈숙영낭자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pp. 1–83.
윤분희, 「박록주 창본 〈숙영낭자전〉 연구」, 숙명여대어문학연구소, 『어문론집』 6, 1996, pp. 89–116.
이미영, 「〈쌍가락지 노래〉의 욕망, 그리고 저항의 목소리」,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40, 2014, pp. 117–144.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축첩 현상과 경제적 부담」,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33, 2008, pp. 319–345.
정출헌,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 선산지방의 향랑이 '국가 열녀'로 탄생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pp. 127–163
최윤영, 「〈숙영낭자전을 읽다〉에 나타난 전통변용양상 – 고소설연행과 관련하여 –」,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40, 2013, pp. 165–199.
최지녀, 「향랑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 향랑전과 향랑전설」, 국문학회, 『국문학연구』 19, 2009, pp. 255–283.

3. 단행본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김태준, 『조선소설사』, 예문, 1989.
박주,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뿌리깊은나무 02–한글 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디자인 길, 2013.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임재해 외, 『안동양반의 생활문화』, 영남사, 2000.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2006.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上), 박이정, 2006.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4. 기타

극단 모시는 사람들, 언론기사 & 공연후기, http://www.modli.com, 2015. 5. 25 검색.

(**투고일**: 2015. 7. 1 **심사완료일**: 2015. 7. 27 **게재확정일**: 2015. 8. 5)

서혜은
소속: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53)950-5113
전자우편: k-novel@kn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ise Aspect and Its Meanings in Narration of Yeong-Nam 〈Suk-Yeong-Nang-Ja-Jeon〉

Seo, Hye-Eu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opularise aspects and its meanings in 〈Suk-Yeong-Nang-Ja-Jeon〉. 〈Suk-Yeong-Nang-Ja-Jeon〉 is set in An-Dong, Kyŏngsang-do. And 〈Suk-Yeong-Nang-Ja-Jeon〉 is created and read in Yeong-Nam region. So 〈Suk-Yeong-Nang-Ja-Jeon〉 is namable to Narration of Yeong-Nam.

Yang-Ban culture of Yeong-Nam region is popularise background of 〈Suk-Yeong-Nang-Ja-Jeon〉. Ruined Yang-Ban's consciousness of the family was overflowed in Yeong-Nam. And ideology of the chastity was severe in Yeong-Nam region. So women's sufferings were intense.

〈Suk-Yeong-Nang-Ja-Jeon〉 is a great many different edition like manuscript, Seoul Block printed, printed books. Manuscript of this novel Seoul Block printed, printed books popularise. Because criticism about Baek-Gong is moderate and chastity of women character are magnified in Seoul Block printed, printed books of 〈Suk-Yeong-Nang-Ja-Jeon〉.

The regionality of Yeong-Nam is stand out popularise process of 〈Suk-Yeong-Nang-Ja-Jeon〉. It is implicited that filial piety consciousness and patriarchal family order is reinforced in popularise aspect of this novel. Thus Yang-Ban's taste about viewpoint of affection and marriage is embossed. Like this of cultual feature Yeong-Nam region and local residents' consciousness is fundamental cause popularity of 〈Suk-Yeong-Nang-Ja-Jeon〉.

Key words: 〈Suk-Yeong-Nang-Ja-Jeon〉, Yeong-Nam, Regionality, Popularity, Yang-Ban culture